

교육장 '허울뿐인 공모제' 꼭 해야하나

광주시교육청 "개방형 인사제 도입" 실효성 떨어지고 줄서기·불협화음 3배수 선발해도 결국 교육감이 낙점

개방형 인사제도로 도입된 광주시교육청의 '교육장 공모제'가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지 못한 반면 행정력 낭비와 내부의 불협화음만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특히 외부 인사가 포함된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3명의 후보가 선발되더라도 결국 최종 낙점은 시교육감이 하는 방식이어서 공모제 자체가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인사권자가 교육철학과 소신에 맞는 인사를 직접 임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광주 동부교육장 공모에는 모

두 3명이 공모했으며, 인사심의위원회(10명)에서 100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인사위원회(9명)의 최종 심사를 통해 3배수 원칙에 따라 3명 모두가 후보로 선발됐다.

안순일 시교육감은 지난달 14일 공모 마감 이후 꼭 23일 만인 5일에야 최종 낙점자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같은 교육장 공모제 방식에 대해 일각에서는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시 교육청은 '시 교육감의 인사권을 스스로 제한시켜 참신하고 능력 있는 인물을 공개적으로 선발하기 위한 제도'라는 입장이지만, 교육계 안팎에서는 공모제의 의도에 대해

공평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는 것이 다.

지역 교육계의 한 원로는 "겉으로는 공정해 보이지만 공모제를 통해 인사에 대한 부담과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보이질 않는다"며 "인사권은 교육감의 고유 권한인 만큼 자신의 교육철학과 소신에 맞는 인사를 직접 임명하면 되지 무슨 말쟁이 두려워 공모제를 고집하는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광주시교육위원회 이승연 위원도 최근 교육현안 질의를 통해 "2007년 신설돼 3번째 시행된 교육장 공모제가 과연 근본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면서 "특히 3배수 추천 방식은 형식에 불과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특히 "교육장 공모제는 이미 타 시·도에서도 시도했으나, 불필요한 갈등과 불협화음만 남기고 폐지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공모제 자체에 대한 신

뢰가 낮아진다 현 광주 교육계의 정서와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상당수 초·중등 교장과 장학관 등이 교육장의 꿈을 꾸지만, 특정인이 미리 내정됐다는 의혹 때문에 지원 자체를 기피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서부교육장 공모에는 단 2명이, 이번 동부교육장 공모에는 3명만이 원서를 제출한 것에서 확인된다.

공모 탈락시 이미지 훼손 등에 대한 우려도 참신한 인사들의 공모접수를 망설이게 하는 이유다.

한 일선 학교 교장은 "만일 지원자를 제출했다가 떨어지면 지역 교육계에서 입방아에 오를 게 뻔한 데 누가 선뜻 지원하겠느냐"면서 "결국 낙점될 가능성이 높은 교원이 지원하게 되고, 이는 교육감이 직접 선발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지역기업 제품 우선 구매 광주시교육청

광주시교육청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물품 구매를 할 때 지역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공사 발주나 물품 구매 때 지역 제품과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 시방, 규격서 등에 반영하고 우선 구매토록 산하 기관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시 교육청이 올해 발주할 공사와 물품 구매, 용역 규모는 1천500억원 대로 지역경제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조달청 3차단이 계약으로 물품을 구매할 때도 지역기업 제품을 우선 선정하고, 일반 사무용품이나 소모품도 지역 제품을 우선 구입하도록 했다.

공사나 용역계약 등을 공고할 때도 지역제원을 우선 적용해 집행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오늘 날씨 해돋이 07시 28분 해질 18시 06분 달돋이 14시 07분 달질 04시 28분

남도는 벌써 '봄'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았다.

구분	구름	조금	2/13°C
광주	구름 조금	2/13°C	
목포	구름 조금	1/11°C	
여수	구름 조금	5/12°C	
완도	구름 조금	3/12°C	
구례	구름 조금	-2/13°C	
해남	구름 조금	-1/12°C	
장흥	구름 조금	-1/13°C	
고흥	구름 조금	-2/14°C	
순천	구름 조금	2/13°C	
영광	구름 조금	-1/11°C	
진도	구름 조금	0/13°C	
전주	구름 조금	-1/12°C	
남원	구름 조금	-2/12°C	
옥산도	구름 조금	5/9°C	

바다	풍향	파고	밀물	썰물
서해 남부 앞바다	북~북동풍	0.5~0.5m	목포 11:34	03:54
연안	북~북동풍	0.5~1.0m	23:32	17:22
남해 서부 앞바다	북~북동풍	0.5~0.5m	여수 06:50	13:10
연안	북~북동풍	0.5~1.0m	18:56	--:--

◇주간날씨 기상내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7(토)	8(일)	9(월)	10(화)	11(수)	12(목)
날씨						
최저/최고	1/12	2/13	3/11	5/12	3/12	4/11

이상태 두암중학교장 광주 동부교육장 내정



이상태(59·사진) 두암중학교 교장이 공모제로 진행된 광주 동부교육장에 내정됐다.

광주시교육청은 5일 "광주시교육감은 이날 인사위원회 등을 거쳐 선발된 3명의 지원자 중 이 교장을 동부교육장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임용 제청했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조선대 체대를 졸업한 체육교사 출신으로 서부교육청 체육담당 장학사와 교감, 교장 등을 거쳐, 교과부장관의 임용 제청을 거쳐 오는 3월부터 2년간 광주 동부교육청을 이끌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주여성 '병원 도우미'

다문화가정 이주여성들이 한국말이 서툰 이주여성과 외국인들이 병원 진료를 편안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우미(통역) 역할을 자처하고 나섰다. 전남대병원 5일 오전 회의실에서 '전남대병원 동아시아 홍보사절단' 발대식을 가졌다. 필리핀과 베트남 등 동아시아 6개국 10명의 이주여성들은 매주 수요일 병원을 찾는 해당 국가 환자들의 안내와 통역을 돕게 된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초·중·고 체력검사 '운동처방' 방식으로 바뀐다

초등 1학년까지 확대

초·중·고교에서 실시되는 체력검사 방식이, 뒷몸일으키기가 사라지고, 심폐지구력과 유연성, 비만도 등을 과학적으로 측정해 운동처방을 내리

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 검사 대상도 기존 초등학교 5학년 이상에서 초등 1학년 이상 전 학년으로 확대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런 방식의 학생건강체력평가를 올해 초등학교부터 전면 도입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실시 방법 등을 담은 학생건강검사규칙 개정안을 5일 입법예고했다. 검사종목은 현행 50m 달리기, 1천 600m(여자 1천200m) 달리기,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제자리 멀리뛰기, 윗몸 일으키기, 팔굽혀펴기, 여자

오래 매달리기(턱걸이) 등 6개에서 왕복 오래 달리기, 오래 달리기 걷기, 스텝(발 움직임), 종합 유연성, 앉아윗몸 앞으로 굽히기, 윗몸 맡아 올리기, 악력(握力), 팔굽혀 펴기, 체지방률, 체질량지수, 50m 달리기, 제자리 멀리 뛰기 등 12개로 바뀐다. 학생들은 이 중에서 자신의 체력 상태에 맞게 5개를 선택하게 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대학 등록률 높아졌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의 2009학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대부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전남대에 따르면 4일 신입생(정시모집) 등록을 마감한 결과, 입학 정원 4천667명 중 3천913명이 등록을 마쳐 83.84%의 등록률을 보였다. 이는 지난 해 등록률 82.79% 보다 1.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조선대도 등록 대상 인원 5천125명 중 4천214명이 등록을 마쳐 지난 해 보다 0.37%포인트 높은 82.22%의 등록률을 보였다.

호남대는 입학 정원 1천888명 가운데 1천580명이 등록을 마쳐 84%(↑2%포인트)의 등록률을 보였다. 광주대는 1천505명 모집에 1천483명이 등록, 지난 해 보다 10.2%포인트

높은 98.5%로 광주·전남지역 대학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목포대는 1천945명 모집 중 1천515명이 등록을 마쳐 77.9%(↑4.9%포인트)의 등록률을 보였으며, 동신대는 1천747명 가운데 1천 389명이 등록해 79.5%(↑2.1%포인트)를 기록했다. /최희준기자 chae@

"불법 주차 화물차 때문에 아이들이 위험해요"

광주 학부모·교사 단체 화물차주차장 건설 촉구

광주지역 학부모·보육·교사 단체가 화물차주들과 함께 화물차 전용 주차장 건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 참교육학부모회와 광산구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교조 광주 지부 등은 최근 화물연대, 민주노동당 등과 함께 '화물차주차장 건설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광주시에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이들이 주차장 건설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광주 도심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량들이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광주에 등록된 화물차는 영업용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 화물을 포함해 총 8천976대에 이르지만 화물차를 위한 공용 또는 공동 차고지는 없는 상태다.

화물차주들은 불법주차로 적발될 때마다 20만원의 벌금을 물고 있지만 도시 외곽에 주차했을 경우 차량 또는 기를 도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도심 주차를 강행하고 있다.

한 학부모는 "도로 곳곳에 대형

차량이 주차돼 있어 아이들이 길을 건널 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산구 진곡산단지구 또는 북구 대촌동 공단 개발부지 내 4만㎡(대형차 600대 수용능력)를 공용 화물차고지로 건설하자는 안을 시에 제시했다.

대책위는 오는 2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지자체의 화물주차장 건설을 의무화하는 법 제정을 추진하는 한편 서명운동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

아이엘리시아 **상품권 판매**

신상품 판매, 특가 행사, 이벤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062) 671-1199**

광주원광신협 **사업자 2,000만원까지 대출**

신원 비과세 혜택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확대

55